



# 고토시 성당 순례 핸드북

정다움과 따뜻함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성당은 “신성한 기도의 집”







### 가톨릭 신자수와 인구 대비 신자 비율 (2016년)

◆세계 가톨릭 신자수	12억명이상 (17.5%) <small>※2016년</small>
◆일본 가톨릭 신자수	434,054명 (0.3%)
◆나가사키현 가톨릭 신자수	60,989명 (4.4%)
◆고토 열도 가톨릭 신자수	8,375명 (14.6%)
◆고토시 가톨릭 신자수	3,113명 (8.3%)

## 목 차

성당 지도	
목차	1
성당에 있는 장식	2
'성당은 기도의 집입니다' 방문시 지켜야 할 매너	3
고토 성당에 어서오세요	4
1 에가미 천주당	4
2 나루 성당	5
3 고린 성당	6
4 구 고린 성당	7
5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	8
6 하마와키 성당	9
7 한토마리 성당	10
8 미야바라 성당	11
9 도자키 성당	12
10 우라가시라 성당	13
11 후쿠에 성당	14
12 시게지키 성당	15
13 미즈노우라 성당	16
14 구스하라 성당	17
15 우치오리 성당	18
16 미이라쿠 성당	19
17 가이쓰 성당	20
18 사가노시마 성당	21
19 다마노우라 성당	22
20 이모치우라 성당	23
그리스도교 역사	24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점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	28
성당 연표	32

## 성당에 있는 장식

성당 안에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서 신자들이 소중히 지키고 있는 공간임을 이해하고 방문합니다.



내진

### 내진 (內陣)

주제단을 안치하기 위한 가장 신성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성직자 이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궤

### 성궤 (聖櫃, 감실)

제단에 있는 성체를 안치하는 상자. 성체(미사에서 축성된 빵)를 모셔둔 경우는 붉은 등이 켜져 있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붉은 등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 십자가의 길

본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메고 걸었던 길을 가리킵니다. 안토니오성에서 갈보리(골고다) 언덕까지 그리스도 신상에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면서 걷는 가톨릭 신심업(信心業)을 위한 14개의 십자가와 그림 또는 조각 등이 성당의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제1처에서 제14처까지 그리스도 수난의 각 장면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공공화장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당 취재 및 미디어 관련 문의는 나가사키대교구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nagasaki.catholic.jp>)

# ‘성당은 기도의 집입니다’ 방문시 지켜야 할 매너

성당 방문시에는 우선 성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객은 성당 관람시 매너를 지키도록 합시다.



## 미사 또는 성당 행사 중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 미사 중 또는 성당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장례식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성당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 주십시오.

## 조용히, 큰 소리 엄금! 휴대폰은 매너 모드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 잡담은 삼가고 휴대폰도 매너 모드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성당 안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도 조용히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보호자 분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노출이 심한 복장은 삼가 주십시오. —

· 성당 안에 들어갈 때는 모자를 벗어 주십시오. 평상복 차림으로 괜찮지만 성인분들의 경우 지나치게 짧은 치마 또는 바지, 민소매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은 피하여 주십시오.

## 고토시의 성당 대부분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며, 관리상 비공개 성당도 있습니다. —

·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성당에서는 신발을 신발장에 넣은 후 관람하십시오.  
· 기도의 장소로 많은 성당이 개방되어 있지만 관리상 개방되어 있지 않은 성당도 있습니다.



## 성당 내외의 장식물, 성구(聖具) 등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

· 성당 입구에 바로 성수반이 있습니다. 신자가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사제가 축성한 물(성수)이 담겨 있습니다.  
· 성당의 종소리는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 성당 내에는 성구, 장식물은 물론 신자의 성서, 성가집, 기도서 등이 놓여 있습니다. 함부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내진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

· 제단이 있는, 한층 높은 위치의 내진은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내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 음식물 섭취, 흡연을 금지합니다. —

· 성당 내에서 음식물 섭취나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성당 내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

· 기본적으로 성당 내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촬영은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쓰레기는 —

· 쓰레기는 반드시 각자 가지고 돌아가도록 부탁드립니다.



## 국가 중요문화재

# 1

# 에가미 천주당

## 아기자기한 흰 벽과 파란 창문

완성도가 높은 중요문화재로 명공 데쓰카와 요스케의 대표작

에가미 천주당의 역사는 1881년 3월에 잠복 기리시탄 4가족이 세례를 받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선조는 에도 시대 말기에 오무라 한(藩)(현재의 나가사키시 소토메 방면)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그 무렵 에가미 지구에는 성당이 없었기 때문에 신자의 집에서 미사를 올리고 있었으며, 1906년, 현재 위치(나루마치 오구시 1131)에 간소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본격적인 성당이 건축 착공된 때는 1917년이었습니다. 당시 신자는 40~50 가구였는데, 각지에서 성당 건축을 하고 있었던 데쓰카와 요스케에게 설계 시공을 의뢰하고 신자들은 후박나무를 잘라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건축자금은 전부 셋줄멸(키비나고)의 지인망어업으로 얻은 수입 등을 모아서 이듬해 1918년 3월에 완성시켰습니다.

에가미 천주당에 찾아가 보면 푸른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얀 벽, 그리고 파란색 창문의 외관으로부터 아기자기한 인상을 받습니다. 건축의 구조는 습기를 피하기 위해 바닥을 높게 하고 기둥에는 손으로 그린 나뭇결 무늬, 창문에는 꽃을 그려 넣은 투명 유리로 장식한 것 등이 특징입니다. 내부는 본격적인 입면구성의 삼량식으로 되어 있고 리브 볼트 천장의 아름다운 곡선이 사람들의 기도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 주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일본의 목조 성당 가운데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고 소규모이지만 성당 건축의 명공 데쓰카와 요스케의 대표작으로서도 중요하여 2008년 6월9일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재지	에가미 천주당 (江上天主堂) 우편번호 853-2202 고토시 나루마치 오구시 1131
교통편	나루 항에서 차로 15분
미사 시간	<셋째주 일요일> 15:0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내부 견학을 위해서는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기리시탄 관련유산 인포메이션 센터'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 095-823-7650) 내부 견학 가능시간 9:00~16:00 성당 지킴이가 견학 불가일을 제외하고 상주단, 매주 월요일(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셋째주 일요일 14:30 이후는 내부 견학 불가
기타	주차장 있음, 화장실 있음



## 2 나루 성당

오무라 한(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자손들  
이주의 선구자, 가즈라시마 섬의 신자 전원이 통합되다.

에도 시대 말기(19세기 중반), 오무라 한(현재의 나가사키시 소토메 방면)에서 이주한 잠복 기리시탄들은 나루 지구의 가즈라시마 섬을 비롯해 섬내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개간을 하며 작은 취락을 형성해 갔습니다.

1868년 고토 박해의 다음 해, 가즈라시마 섬의 신자 12가구가 관아에 불려가 당시의 우두머리(향장)를 비롯한 3명이 산기체에 고문(삼각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로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고문)을 받았으나 나루시마 섬에서는 더 이상의 박해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1873년에 금교령이 철폐되고 고토 각지에 성당이 잇달아 세워졌지만 그 무렵의 나루시마 섬과 주변지구에는 가즈라시마와 에가미 2군데 밖에 성당이 없었습니다.

최초의 나루 성당은 건설 자금 대부분을 슈쿠와(宿輪)취락 약20가구의 신자들이 부담하여 가미고토 아오카타에 있는 목수에게 의뢰해서 1926년 현재 위치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확장 공사도 했지만 1959년 태풍을 견뎌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신자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현재의 성당은 1961년에 건설이 착공되고 같은 해 12월 14일에 축성 헌당되었습니다.

나루 성당 역사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1973년 3월에 가즈라시마 섬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가시노키야마 지구에 이전해서 신자 전원이 나루 성당 소속이 된 것입니다. 낙도 중의 낙도 가즈라시마 섬에서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즈라시마 섬은 나루시마 지구 안에서 오무라 한의 잠복 기리시탄 이주가 가장 먼저 행하여져 백 수십 년간에 걸쳐 열심히 지켜온 신앙의 역사가 새겨진 섬이었지만 이 집단 이전에 의해 가즈라시마 성당은 폐당되었습니다.



소재지	나루 성당 (奈留教会) 우편번호 853-2201 고토시 나루마치우라 395
교통편	나루 항에서 도보 20분, 나루 항에서 차로 5분
미사 시간	<월~금(수요일 제외)> 6:00 <수> 17:30 <첫째주, 셋째주, 넷째주 토요일> 19:00 <둘째주 토요일> 18:00 <일> 8:0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가능 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있음, 화장실 있음



### 3 고린 성당

소박한 생활에 뿌리 내린 신앙  
구 고린 성당과 나란히 세워져 있는  
새로운 성당

히사카지마 섬의 험한 산을 배경으로  
나루세토에 면한 작은 항구의 얼마 안되는  
토지에 구 고린 성당과 고린 성당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 성당은 구 고린 성당의 노후화로 인해 1985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 있는 구 고린 성당을 보존하고, 바로 옆에 세워진 것으로 고토  
시에서는 새로운 성당 중 하나입니다.

고린 성당 내진(※)에 있는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성 요셉 조각상, 좌우의 십자가의  
길(※) 액자 등 모두 작고 간소한 것이지만 이 지역의 소박한 생활에 뿌리 내린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성당이 세워져 있는 고린 지구는 현재에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방문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차에서 내려서 산길을 걷거나 해상 택시 또는 어선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주제단을 안치하기 위한 성직자 전용 공간(2페이지참조)

(※) 2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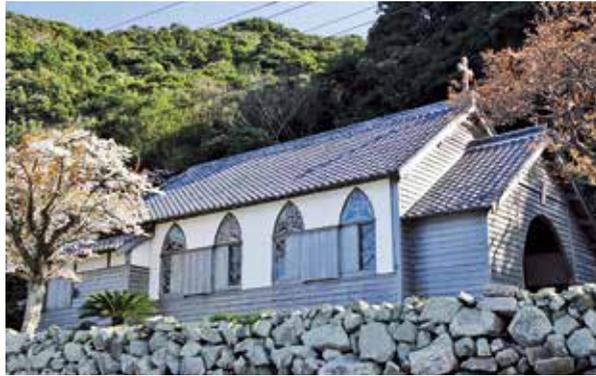
소재지	고린 성당 (五輪教会) 우편번호 853-2172 고토시 와라비초 고린
교통편	후쿠에항 → 해상 택시 25분 → 고린항 후쿠에항 → 정기선 20분 → 다노우라항 → 차로 약40분 → 하차 후 도보 10분 후쿠에항 → 차로 12분 → 오쿠우라항 → 해상 택시 10분 → 다노우라항 또는 하마와키항 → 차로 약40분 → 하차 후 도보 10분
미사 시간	<넷째주 일요일> 10:0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 ~ 17:00
기타	주차장 없음 (차로 통행 불가), 화장실 있음



## 국가 중요문화재

# 4 구 고린 성당

신자의 열의가 해체의 위기를 구하다.  
일본 가옥의 외관으로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내부의 공간구성



구 고린 성당은 하마와키 성당이 재건축을 하게 되어 고린 지구에 물려준 것입니다. 1881년에 하마와키 성당으로 히사카지마 섬 하마와키에 세워진 것이 1931년에 현재의 곳으로 이축되었습니다. 구 고린 성당은 이후 약50년간 고린 지구와 와라비코지마 섬의 신자들의 신앙의 근거지였지만 노후화로 인해 1985년 바로 옆에 고린 성당이 신축되어 성당으로서의 역할을 마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해체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귀중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지키자”는 관계자의 열의와 현지 신자들의 협력에 의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시의 모습으로 보존되었습니다. 건물은 후쿠에시(현 고토시)에 기증되어 시의 유지관리 아래 일반 공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은 창건 당시의 형태가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지만 이축 시에 정면 현관이 덧붙여지고, 제단 뒤에 달개집도 확장된 흔적이 보입니다. 목조 기와 단층 건물로 창문이 첨두 아치형인 점을 제외하면 외관은 일견 완전한 일본식 건축입니다. 내부는 삼랑식, 판자로 된 리브 볼트 천장에 의한 공간구성, 고딕풍 제단 등, 정통 성당 건축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당 건축의 양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귀중한 건물로 1999년 5월13일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재지	구 고린 성당(旧五輪教会堂) 우편번호 853-2172 고토시 와라비초 993-11
교통편	후쿠에항 → 해상 택시 25분 → 고린 항후쿠에항 → 정기선 20분 → 다노우라항 → 차로 약40분 → 하차 후 도보 10분 후쿠에항 → 차로 12분 → 오쿠우라항 → 해상 택시10분 → 다노우라항 또는 하미와키항 → 차로 약40분 → 하차 후 도보 10분
미사 시간	미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개방	내부 견학을 위해서는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키리시탄 관련유산 인포메이션 센터'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 0959-823-7650) 내부 견학 가능시간 9:00~17:00 성당 지킴이가 9:00~16:00 대음 ※월요일 제외
기타	주차장 없음(차로 통행 불가), 화장실 없음



## 5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

‘고토 박해’의 역사가 새겨진 장소  
매년 고토 안팎에서 신자가 모여  
순교자를 찬양

1868년 이 곳(히사카초 오비라키)에서 히사카지마 섬내의 신자들이 붙잡혀 잔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고토 박해’라고

불리는, 고토에 있어서 기리시탄 탄압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교(가톨릭)의 신앙을 표명했기 때문에 붙잡힌 것으로 다다미 12장 정도(약20m<sup>2</sup>)의 좁은 감옥에 200여명이 감금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다미 1장(약1.65m<sup>2</sup>)당 17명이란 좁은 공간으로 누울 수도 없고 배설도 그 자리에서 해야한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신자들은 8개월에 걸쳐 이 상황을 참아 냈지만 굶주림이나 병, 고문으로 인해 39명이 사망하고 감옥에서 나간 후 사망한 3명을 더하면 42명의 신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순교의 장소에 세워져 있는 것이 현재의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입니다. 최초의 성당은 순교자를 현창하기 위해서 1969년 3월 순교지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세워졌지만 그 후 노후화로 인해 1984년에 실제로 옥사가 있었던 장소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당 내부의 바닥 용단을 색으로 구분하여 옥사의 넓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들이 겪은 고통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가을에 순교자를 기리고 선조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고토 내외의 신자와 순례자가 모여 로야노사코 순교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소재지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 우편번호 853-2172 고토시 히사카초 오비라키
교통편	후쿠에항 → 정기선 20분 → 다노우라항 → 차로 15분 → 성당 후쿠에항 → 차로 15분 → 오쿠우라항 → 해상 택시10분 → 다노우라항 또는 하마와키항 → 차로 15분 → 성당
미사 시간	<셋째주 일요일> 9:3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없음, 화장실 있음



## 6 하마와키 성당

### 고토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

히사카지마 섬에서 최초의 본격적 목조 성당은 그 역할을 마치고



1789~1801년에 오무라 한(藩)에서 이주한 잠복 기리시탄은 히사카지마 섬의 가미노히라, 자자레, 에이리, 고도마리, 소토와, 오비라키 등에 정착하였습니다.

1866년 무렵 히사카지마 섬의 잠복 기리시탄들에게도 역사적인 나가사키의 신도 발견의 사건이나 프티장 주교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선조 대대로 전해지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드레(가톨릭 사제)의 출현에 위험을 무릅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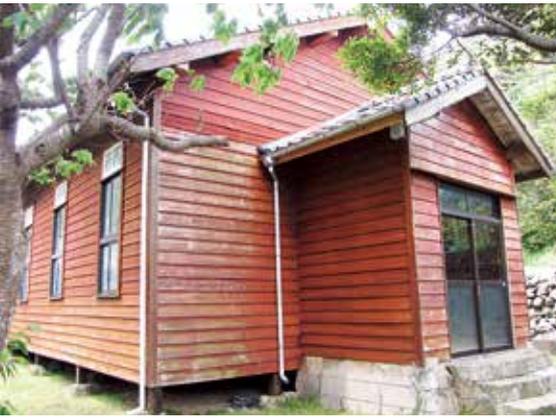
히사카지마 섬에서 몰래 나가사키로 건너가 프티장 주교에 가르침을 받는 신자도 나왔습니다. 그 후 히사카지마 섬에서는 금교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관소(代官所 관아)에 스스로 기리시탄임을 공언하는 신자가 잇달아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히사카지마 로야노사쿠 순교 사건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히사카의 땅에서 박해를 극복한 신자들에 의해 1881년에 건립된 것이 최초의 하마와키 성당입니다. 외관은 완전한 일본식 건축이었지만 내부는 삼랑식, 판자로 된 리브볼트 천장에 의한 공간구성, 고딕풍 제단 등 정통 성당 건축 양식의 훌륭한 성당이었습니다 (현 구 고린 성당).

목조의 성당은 갯바람에 노출되어 심하게 손상되고 계속 늘어나는 신자수에 대응할 수 없게 되자 1931년 태풍에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함이 추구되면서 고토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당으로 다시 세워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재지	하마와키 성당(浜脇教会) 우편번호 853-2173 고토시 다노우라초 263
교통편	후쿠에항→정기선 20분→다노우라항→도보 10분→성당 후쿠에항→차로 15분→오쿠우라항→해상 택시 10분→다노우라항 또는 하마와키항→도보 10분→성당
미사 시간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 일요일> 8:00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18:00 <첫째주 금요일> 6:00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목요일> 6:0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있음, 화장실 있음



## 7 한토마리 성당

청결감과 기도하는 곳의 맑고도 깨끗함  
데쓰카와 요스케가 시공하고  
아일랜드로부터 기부금도

에도 시대 말기(19세기 중반) 기리시탄 탄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오무라 한(藩)에서 고토에 온 몇몇 가족이 후쿠에지마

섬 북동부의 작은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원수가 정착하기에는 토지가 좁았기 때문에 그 반수만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반수는 미이라쿠 방면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 곳을 한토마리(半泊 반수가 머물렀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토마리 취락에서는 1920년부터 성당 건축계획이 구체화되고 아일랜드로부터의 기부금이 건설자금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신자들도 가난한 생활 속에서 봉사작업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목수는 데쓰카와 요스케이며 성당 부지로서 신자의 밭을 매입하여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22년에 완성시켰습니다.

일견으로는 민가와 같은 건물 안에는 소박한 목재를 사용하고 있고 장식을 억제한 제단과 벽으로 구성되어 깔끔한 청결감이 감돕니다. 코브 천장(꺼어 올린 천장)이며 삼랑식, 제단 앞에는 흰 벽에 하늘색으로 테가 둘러져 있는 맑고 깨끗한 기도의 공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축 5년 후 신자들은 성당을 태풍의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토마리 해안의 돌을 모아서 성당 정면에 방풍 돌담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도 대규모 수복공사가 실시되어 1970년에는 부지 경계에 콘크리트 벽이 설치되는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중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다.



소재지	한토마리 성당 (半泊教会) 우편번호 853-0054 고토시 도기초 한토마리 1223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30분
미사시간	<둘째주 일요일> 13:00
시설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가능시간	9:00~17:00(동절기 16:00까지)
기타	주차장 있음, 화장실 없음

# 8 미야바라 성당

## 손꼽아 기다렸던 신부의 순회 페루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세례를 준 곳



1797년 이후 오무라 한(藩)에서 고토로 이주한 잠복 기리시탄들은 오쿠우라 지구의 히라조, 우라가시라, 오토마리, 하마도마리, 도자키, 사가세, 간논비라, 한토마리, 마부시, 그리고 여기 미야바라에도 정착했습니다. 미야바라의 기리시탄들도 이 지역 사찰의 불교신자로 가장하여 잠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 많은 고난을 극복한 신자들은 금교령이 철폐되고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취락에 성당을 지었습니다. 페루 신부가 이 성당을 순회하며 미사를 드리면서부터 당시의 대표를 비롯하여 십여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당에서는 선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전도부인이 순회 숙박을 하며 가톨릭 교리나 아이들의 예절교육 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성당 내부는 제단 앞에 미사할 때에만 여는 미달이가 있어 평상시는 닫은 채 사용했다고 합니다.

1971년 신자들이 당시의 대표를 중심으로 자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1일에 개축공사를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재지	미야바라 성당 (宮原教会) 우편번호 853-0054 고토시 도기초 773-2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20분
미사 시간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13:0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있음, 화장실 없음



## 9 도자키 성당

고토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부활의 거점 포교 활동의 중요 거점으로서 당당한 존재감

1868년의 히사카지마 로야노사코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오쿠우라 지구에서도 기리시탄에 대한 고문이나 포박, 투옥 등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1873년, 프레노 신부가 섬에 와서, 금교령이 철폐된 후 고토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미사를 도자키 해변에서 올렸습니다. 1877년에는 사제가 상주하게 되고 고토에서 본격적인 사목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 섬내 각지에 소교구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도자키는 고토 기리시탄 부활 후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880년 파리 외방 전교회 마르만 신부에 의해 도자키에 임시성당이 건립되었습니다. 후임인 페루 신부에 의해 개축 공사를 하여 1907년에 현재의 성당이 완성되고 다음해인 1908년에 축성 되었습니다.

당시의 건축기술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1974년 4월9일 나가사키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1977년에는 내부에 도자키 천주당 기리시탄 자료관이 개설되어 포교시대부터 박해를 거쳐 부활에 이르는 신앙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 지역은 선교 활동 재개와 동시에 선교사 지도 아래 시작된 고베야(子部屋 아동 양육 시설)와 그 사업의 모체가 된 온나베야(女部屋 아동 양육을 도왔던 독신 여성들을 위한 시설)의 발상지로서 신앙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재지	도자키 성당 (堂崎教会) 우편번호 853-0053 고토시 오쿠우라초 도자키 2019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15분
미사시간	<첫째주 일요일> 6:00
입장료	어른 300엔 중고생 150엔 어린이 100엔 (20명 이상 단체 할인 있음)
개관시간	9:00~17:00(동절기 16:00까지)
기타	주차장 있음, 화장실 있음
비고	성당 내부에 도자키 천주당 기리시탄 자료관

# 10 우라가시라 성당

노아의 방주를 이미지화  
마을산을 배경으로 백악의 현대적인  
모습이 빛나 보인다



1868년 12월 후쿠에지마 섬의 오키우라 마을에서는 신자 59명이 우라가시라의 신자 집에 붙잡혀 갇히는 사건이 있었고 히사카지마 섬에 이어서 기리시탄 박해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 후도 투옥자는 늘어나 다른 옥사에 2년 넘게 수용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1873년의 금교령 철폐에 따라 박해나 추방이 멈췄고 투옥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우라가시라 지역에 초대 성당이 건립된 때는 1888년입니다. 2대 성당은 데스카와 요스케의 설계, 시공에 의해 1921년 6월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히라조 성당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미사를 위해 근교에서 온 신자들이 성당에 전부 들어갈 수 없어서 정원까지 나와 미사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5월에 대폭적인 증개축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의 우라가시라 성당은 1968년 취락의 높은 지대에 장소를 옮겨 건설되었습니다. 시모고토에서 중심적 역할을 다한 도자키 소교구의 폐지 및 오토마리 성당이 폐쇄되어 오키우라 지구의 신자들은 다음해 발족한 우라가시라 소교구(당시의 신자수 1,170명, 가구수 170가구)에 속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마을 산의 풍경을 배경으로 백악의 현대적인 모습이 두드러지는 우라가시라 성당은 구약성서의 노아의 방주를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라가시라 성당을 공연장으로 사용하여 시내의 음악 애호가와 신자들이 포함된 오키우라 혼성합창단의 장엄한 성가 콘서트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소재지	우라가시라 성당 (浦頭教会) 우편번호 853-0051 고토시 히라조초 2716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10분
미사 시간	<월~금 (화요일 제외)> 6:00 <화> 17:30 <일> 5:30 (첫째주 일요일 제외), 8:0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있음, 화장실 없음



# 11 후쿠에 성당

‘후쿠에 대화재’에서 소실을 모면 시모고토의 중심에 있고 신자수도 가장 많은 성당

후쿠에 성당의 역사는 1896년에 히사카지마 섬에서 최초의 신자가 후쿠에 지구에 이주해 온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페루 신부가 1910년 전후에 당시 공립병원의 병동이 세워져 있었던 현재의 성당 부지를 건물과 함께 구입하여 성당으로 개조했습니다.

1914년 4월에는 그때까지 소속해 있던 구 도자키 소교구에서 분리, 독립하여 새롭게 후쿠에 소교구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후쿠에 성당 신자의 오랜 꿈이며 현안이었던 새로운 성당의 건설은 신자들이 서로 자금을 모아 1961년 3월에 착공, 1962년 4월25일 헌당이라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부터 불과 5개월 후인 9월26일 미명에 일어난 ‘후쿠에 대화재’는 시가지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던 나가사키현 내에서는 전후 최대의 대화재였지만, 완성된 지 얼마 안된 후쿠에 성당은 기적적으로 소실을 모면하였고, 불탄 자리에 우뚝 솟은 성당은 부흥의 상징으로서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토시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시모고토 지구에서는 신자수가 가장 많은 성당으로 시내 성당의 중심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후쿠에 성당(福江教会) 우편번호 853-0005 고토시 스에히로마치 3-6
교통편	후쿠에항에서 도보 15분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10분
미사 시간	<월~금> 6:00 <토(주일 미사)> 19:00 <일> 6:00, 9:0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있음, 화장실 있음

# 12 시게지키 성당

## ‘야만다’에 세워진 성당

이전해서 울창한 산길 꼭대기에  
고요하게



1853년 기시쿠촌(村) 후쿠미에 살고 있었던 한 기리시탄 가족이 땅을 일구어 10년간에 걸쳐 시게지키 지역까지 논을 넓혀 간 것에서 시게지키 성당의 역사가 비롯되었습니다. 그 후 1865~1868년에는 이 지역에 잠복 기리시탄들이 모여들어 8가구로 늘어나 산을 개척한 것으로 ‘야만다(山ノ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교 신도로 위장하고 몰래 그리스도교를 지키고 있었지만 고토에서 일어난 박해의 폭풍은 이 깊은 산속에도 예외 없이 불어닥쳐 1870년으로부터 고문, 탄압, 논밭이나 재산의 몰수, 약탈 등 극심한 고통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신자들은 1919년 현재 위치가 아닌 산기슭 평지에 최초의 성당을 세웠습니다. 이 성당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식량증산을 위해서 시게지키 댐 건설이 시작되었을 당시 작업원의 숙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경 숙박하던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48년에 성당 재건에 이르렀지만 이 성당도 시게지키 댐의 건설구역 내라는 이유로 해체되어 이때 많은 신자가 나가사키 시나 소토메 초(町)(현 나가사키시) 방면으로 이주했습니다.

26년의 세월이 지나 1974년, 시게지키 댐 옆을 지나 울창한 산길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가면 있는 좁은 토지에 세워진 것이 현재의 성당입니다.



소재지	시게지키 성당 (繁敷教会) 우편번호 853-0204 고토시 도미에마치 시게지키 도렌지
교통편	후쿠에향,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30분
미사시간	<넷째주 일요일> 15:30 ※ 미사가 없는 달도 있습니다.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6:00
기타	주차장 있음(2대), 화장실 없음



## 13 미즈노우라 성당

데쓰카와 요스케의 명작 목조 성당  
피승천의 성모에게 바쳐진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악

미즈노우라 성당의 역사는 에도 시대 말기(19세기 중반)에 오무라 한(藩)에서 이주한 잠복 기리시탄 가운데 5명의 남자와 그 가족들이 이주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불교도로 위장하고 몰래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1866년경 가미고토의 신자가

미즈노우라에 와서 나가사키 오우라에 기리시탄 성당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같은 해 11월8일 미즈노우라의 조카타(帳方) 가톨릭 교회력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신자 대표) 등 3명이 나가사키에 가서 프티장 주교를 만나 메달과 십자가를 받아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1868년 12월25일, 미즈노우라의 기리시탄들이 조카타의 집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 중 관리가 들이닥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4~5일 후 30여명의 남자들이 불잡혀 임시 옥사로 만든 당시 조카타의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1869년에 옥에서 풀려났지만 주요 인물이었던 8명은 2여년 넘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즈노우라의 신자들은 금교령이 철폐되고 7년 후인 1880년에 미즈노우라 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최초의 성당을 건립했습니다.

6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서 성당은 세차게 불어오는 갯바람으로 노후화되어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미즈노우라 성당은 1938년 설계, 시공을 명공 데쓰카와 요스케가 맡았으며 당시 운젠에 세울 예정이었던 성당이 사정에 의해 건설이 취소되어 그 자재를 그대로 매입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피승천의 성모에게 바쳐진 백악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소재지	미즈노우라 성당 (水ノ浦教会) 우편번호 853-0701 고토시 기시쿠마치 기시쿠 1643-1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30분
미사시간	<월·금> 5:45 <수> 17:30 <토> 18:00 <일(홀수주)> 8:30 <일(짝수주)> 6:3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가능시간	9:00~16:00
기타	주차장 있음(반드시 성당 아래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 14 구스하라 성당

고딕 양식 벽돌 구조의 강건함  
경내에는 파티마의 성모와 목동의 조각상



오무라 한(藩)(현재의 나가사키시 소토메 방면)에서 이주해 온 잠복 기리시탄 제1진 108명 가운데 일부는 구스하라에 정착했습니다. 1865년 신도 발견의 날을 맞이하여 고토의 기리시탄들도 차례로 나가사키의 프티장 주교를 방문하며 고토의 방방곡곡에 손꼽아 기다렸던 신부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고토에서는 메이지 시대로 바뀌어갈 무렵(19세기 중반)부터 신자에 대한 탄압이나 포박이 시작되고 구스하라에서도 조카타(帳方 가톨릭 교회력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신자 대표)의 집이 옥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고토에서는 메이지 시대로 바뀌어갈 무렵(19세기 중반)부터 신자에 대한 탄압이나 포박이 시작되고 구스하라에서도 조카타(帳方 가톨릭 교회력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신자 대표)의 집이 옥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즈노우라의 옥사로 옮겨지자 이들에게는 배교할 것을 강요하는 관리의 잔혹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73년 금교령이 철폐되어 마침내 포박이나 투옥은 없어졌습니다.

그 후 미즈노우라의 옥사로 옮겨지자 이들에게는 배교할 것을 강요하는 관리의 잔혹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73년 금교령이 철폐되어 마침내 포박이나 투옥은 없어졌습니다.

1912년 테쓰카와 요스케에 의해 3년의 세월을 거쳐 완성된 것이 현재의 구스하라 성당입니다. 외관은 벽돌 구조의 고딕 양식이며 내부는 리브 볼트 천장으로 되어진 시모고토에 현존하는 성당으로서는 도자키 성당에 이어 2번째로 오래된 성당입니다. 그 후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구스하라 성당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여 그 때마다 부분적인 보수가 실시되었고, 1968년에는 제단부분을 포함한 대규모 증축, 보수 공사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2년 테쓰카와 요스케에 의해 3년의 세월을 거쳐 완성된 것이 현재의 구스하라 성당입니다. 외관은 벽돌 구조의 고딕 양식이며 내부는 리브 볼트 천장으로 되어진 시모고토에 현존하는 성당으로서는 도자키 성당에 이어 2번째로 오래된 성당입니다. 그 후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구스하라 성당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여 그 때마다 부분적인 보수가 실시되었고, 1968년에는 제단부분을 포함한 대규모 증축, 보수 공사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파티마의 성모와 목동들의 귀여운 조각상이 놓여진 곳이 있어 그 곳 역시 기도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내에는 파티마의 성모와 목동들의 귀여운 조각상이 놓여진 곳이 있어 그 곳 역시 기도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처에는 1868년의 탄압으로 기리시탄이 투옥된 구스하라 감옥터가 남아 있으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처에는 1868년의 탄압으로 기리시탄이 투옥된 구스하라 감옥터가 남아 있으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소재지	구스하라 성당(楠原教会) 우편번호 853-0703 고토시 기시쿠마치 구스하라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30분
미사 시간	<수·토> 5:45 <일(홀수주)> 6:30 <일(짝수주)> 8:30
시설 개방	통상시는 열려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6:00
기타	주차장 있음(20대), 화장실 있음



## 15 우치오리 성당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해변의 성당  
기도를 통해서 성당 건설의 소망을  
이룬  
신자들의 보금자리

시모고토에 기리시탄 탄압의 거센 바람이 불었던 메이지 초기(19세기 중반) 우치오리 지구의 신자들도 기시쿠 지구 등의 신자들과 같이 체포된 후 미즈노우라의 옥사에 투옥되어 고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금교령이 철폐되면서 섬내 각 지구에는 성당이 잇달아 건설되어 갔는데 우치오리 취락에는 오랫동안 성당이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일요일 미사에 참가하기 위해 2시간을 걸어서 구스하라 성당에 가거나 배로 미즈노우라 성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의 염원이었던 우치오리 성당 건설은 1935년의 일이었으며 일년에 한 번 있는 목상회를 위해 취락 뒷산 중턱에 세워졌고 그 후 정기적으로 미사가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근처에는 공동 묘지도 있었지만 길다운 길도 없고 논과 밭의 두렁길을 이용해 성당에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 후 노후화로 인해 1973년 해변으로 장소를 옮겨서 건설된 것이 현재의 우치오리 성당입니다.

우치오리 성당은 맞배 지붕의 단순한 형식으로 소규모이며 벽은 흰색 페인트로 마무리된 검소한 성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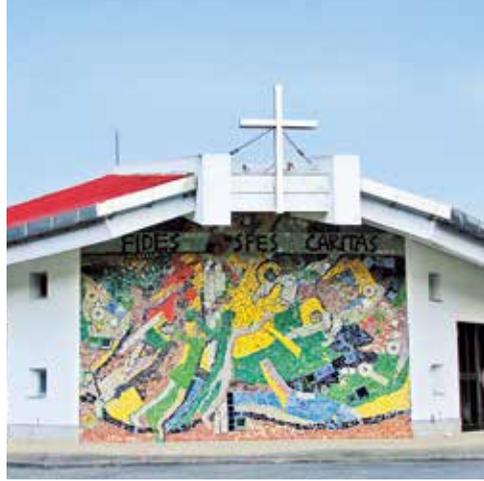
신자들은 월 2회의 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성당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소재지	우치오리 성당 (打折教会) 우편번호 853-0702 고토시 기시쿠마치 가와라 우치오리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30분
미사 시간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10:3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6:00
기타	주차장 없음, 화장실 있음

# 16 미이라쿠 성당

스테인드글라스에 마음을 담아서  
외벽 정면의 도기로 그려진  
모자이크 성화도 인상적



미이라쿠 성당은 외벽 정면의 도기로 그려진 큰 모자이크 성화(테마는 모든 성인)와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이 대단히 인상적인 성당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미이라쿠 출신의 독지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 지역의 자원봉사 그룹에 의해 수년간에 걸쳐서 제작되어 2005년에 완성된 비교적 새로운 성당입니다.

이 지구의 기리시탄 역사는 1772년에 70명의 농민이 후치노모토에, 다음해인 1773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이라쿠에 이주한 것에서 비롯되며 그로부터 3년 후에는 78명이 후치노모토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1839년에는 나가사키 우라카미 2번째 박해에서 풀려난 신자 일부가 미이라쿠(다케 취락)에 정착했습니다.

1868년 히사카지마 섬에서 시작된 기리시탄 박해는 미이라쿠에도 이르게 됩니다. 신자들은 탄압을 견디어 내고 배교자나 사망자 없이 대부분은 1개월 만에 옥에서 풀려났지만 일부 신자는 투옥된 채로 있다가 전원이 방면된 것은 1871년의 일이었습니다.

1880년 현재 위치에 고딕 양식의 목조 성당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필요에 따라 대수리를 실시하였고 신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개축을 거듭했지만 건축한 지 90년이 지난 1970년 흰개미에 의한 피해로 해체해야만 했습니다.

다음해인 1971년에는 새로운 성당이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재지	미이라쿠 성당(三井楽教会) 우편번호 853-0607 고토시 미이라쿠마치 다케 1420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40분
미사시간	<월~토(수요일 제외)> 6:00 <토(주일 미사)> 18:30 <일> 7:30
시설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가능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있음, 화장실 있음



## 17 가이쓰 성당

삼각지붕의 첨탑이 증축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따스한 공간으로

가이쓰 성당의 역사는 오무라 한(藩)에서 미이라쿠의 훗타 또는 다마노우라 초(町) 돈토마리에 이주한 잠복 기리시탄이 그 후

다케야마 취락으로 다시 이주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메이지 초기(19세기 중반) 히사카지마 섬의 박해가 미이라쿠에 미치면서 가이쓰의 신자들도 하마노쿠리의 대관(代官 지방관리) 저택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옥사에 투옥되었습니다. 금교령이 철폐되고 반세기 후인 1924년 당시 40가구의 신자들에 의해 목조의 현재 성당이 건립되어 사도 성 요한에게 봉헌되었습니다. 가이쓰 성당은 다케(현재 미이라쿠) 소교구의 순회 성당으로서 발족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신자 대부분이 다케야마 취락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성당이 세워지기 전에는 같은 부지에 10평 미만의 구 성당이 있었는데 너무 좁아서 사제 순회시에는 신자들이 성당 밖에까지 넘쳐났다고 합니다.

1952년에는 다케 소교구에서 독립해서 가이쓰 소교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성당은 1962년에 노후화로 인해 대폭적인 증개축이 실시되었는데 삼각 지붕의 작은 첨탑은 이 때 새롭게 덧붙여진 것입니다. 내부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적색, 청색, 녹색의 선명한 빛이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을 비추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성당 내에는 내진에 계절에 맞는 형형색색의 꽃이 장식되어 있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느끼게 해 줍니다.



소재지	가이쓰 성당(貝津教会) 우편번호 853-0604 고토시 미이라쿠마치 가이쓰 458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40분
미사시간	<수> 6:00 <일> 6:00
시설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가능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있음(10대), 화장실 있음



## 18 사가노시마 성당

창건 당시의 모습을 소중히 지켜온 어업에 종사하는 신자가 마리아상에 무사 항해를 기도



1797년 이후 오무라 한(藩)에서 박해를 피해 온 잠복 기리시탄들은 가이쓰의 서쪽 앞바다 4킬로 지점에 떠 있는 작은 사가노시마 섬에 정착했습니다.

금교령이 철폐된 후 사가노시마에 성당이 세워질 때까지는 신자의 집을 이용해서 미사를 드렸고 1888년 소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 1918년 많은 신자들이 사는 다케하라 취락에 목조의 현재 성당을 완성시켰습니다. 성당을 창건할 당시에는 미이라쿠 소교구에 소속하고 있었지만 1953년 가이쓰 성당이 미이라쿠 소교구에서 분리 독립한 것을 계기로 가이쓰 소교구의 순회 성당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섬의 신자들은 1918년에 세워진 현재의 성당을 여러차례 보수하면서 소중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고토에서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은 활기있는 섬이며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은 자식 그리고 손자 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어업이 왕성한 이 섬에서는 주민의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신자들은 선조들이 하던 것처럼 배에 마리아상을 모시고 위험이 수반되는 바닷일의 무사 안전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가노시마 성당에는 미이라쿠 성당에서 월 2회 사제가 순회하여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사가노시마 성당(嵯峨島教会) 우편번호 853-0611 고토시 미이라쿠마치 사가노시마
교통편	가이쓰항에서 사가노시마 여객선 10분 → 사가노시마 부두에서 도보 약 10분
미사시간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10:00경 ※ 날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시설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가능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3대, 화장실(사가노시마 여객 대합실에 있음)



## 19 다마노우라 성당

### 그리운 동화의 세계와 같은

주변 풍경에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성당

다마노우라에서는 당시 이 지구에 흔히 볼 수 있었던 2층 건물의 신자 집 2층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취락에서 이사해 온 사람들을 포함한 이 지구에 사는 신자들에 의해 1962년에 세워진 것이 현재의 다마노우라 성당입니다.

다마노우라 성당은 절경인 오세자키 절벽(등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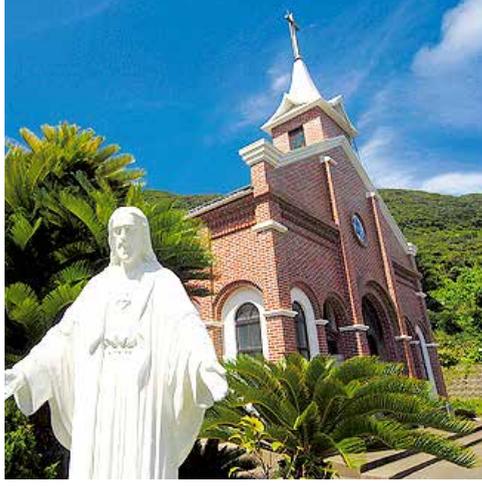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루르드가 있는 이모치우라 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마노우라마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잔잔한 해변에 접해 있고 민가가 나란히 서 있는 길 한쪽에 있는 성당으로 맞배 지붕에 현관을 덧붙인 소박한 건물입니다. 내부는 소규모이지만 제단과 신자석이 조화를 이루며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탑, 십자가 그리고 흰 벽으로 된 작은 성당은 먼 곳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며 주변 풍경과도 잘 어울려 어딘지 그리운 동화의 세계를 느끼게 합니다.



소재지	다마노우라 성당 (玉之浦教会) 우편번호 853-0411 고토시 다마노우라마치 다마노우라 622-1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65분
미사 시간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17:0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없음, 화장실 있음

# 20 이모치우라 성당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루르드를 찾아서  
사가노시마 섬 등 고토 각지의 암석으로  
동굴을



이모치우라 성당이 세워져 있는 다마노우라  
일대는 고토에 박해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메이지 초기(19세기 중반) 유일하게 박해를  
피할 수 있었던 지구입니다.

1897년 프랑스인 선교사 페루 신부의 지도에 의해 리브 볼트 천장이 있는 벽돌  
구조의 훌륭한 성당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99년 페루 신부는 이  
곳에 프랑스의 루르드(성모 발현지)를 모방한 동굴을 만들 것을 신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페루 신부의 지도 아래 동중국해의 거센 파도로 씻겨진 사가노시마 섬의 다수의  
암석을 비롯해 고토 각지에서 형태가 좋은 돌이나 진귀한 암석을 모아서 성당 옆의  
주방을 부수고 그 장소에 루르드를 만들었습니다. 완성 후 페루 신부는 모국  
프랑스에서 들여온 본고장 루르드의 기적의 샘물을 부어 넣었고 함께 프랑스에서  
들여온 성모상을 동굴에 안치했습니다. 1900년에는 쿠잔 주교에 의해 이모치우라  
성당 루르드의 성대한 축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성당을 건설한 지 29년이 지난 1924년, 성당 내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처음 건설할  
때의 성당 양옆 바깥쪽에 벽 없이 설치됐던 아케이드를 성당의 내부로 들어 오게  
하는 개수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최초의 로마네스크풍 성당으로서 이름을 떨친 초대  
이모치우라 성당도 건축된 지 90년이 지난 1987년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해체되고 다음해 새롭게 현재의 이모치우라 성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소재지	이모치우라 성당 (井持浦教会) 우편번호 853-0411 고토시 다마노우라마치 다마노우라 1243
교통편	후쿠에항, 후쿠에 공항에서 차로 60분
미사시간	<둘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수요일> 17:00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 토요일> 17: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8:30
시설 개방	평상시 열려 있습니다.
방문 가능 시간	9:00~17:00
기타	주차장 있음(50대), 화장실 있음



# 그리스도교 역사

—고토 열도에서의 신앙의 발자국—

## 전래

###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의 포교 활동이 나가사키에 뿌리내려

유럽에서는 15세기 초부터 대항해시대가 시작되어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 신발견’으로 인해 세계관이 격변했습니다. 특히 동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포르투갈은 16세기 초, 고아와 말라카를 아시아 무역의 중계지로 삼았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인이 처음으로 일본의 다네가시마 섬에 도착하여 조총을 전하였고 1549년에는 예수회 창립 멤버 중 하나인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일본에 와서 그리스도교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에 의해 일본에 전해진 그리스도교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널리 퍼졌습니다. 1580년 최초의 기리시탄 다이묘(大名 지방영주) 오무라 스미타다에 의해 예수회에 봉납된 나가사키는 일본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포교 활동의 중심이 되어 많은 성당과 관련시설이 세워졌습니다. 그 번영의 모습을 당시의 기록에서는 ‘일본의 작은 로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시모고토의 포교와 발전

### 알메이다의 포교 활동을 시작으로 신자 2,000명

시모고토의 그리스도교 전래는 1566년 영주 우쿠 스미사다가 수도사 루이스 드 알메이다(의사이기도 함)와 로렌소 료사이(일본인 수도사)를 고토에 초청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알메이다와 로렌소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가신 중 25명이 세례를 받으므로 고토 최초의 기리시탄이 탄생했습니다.

시모고토에서 가신 25명이 세례를 받은 것을 알게된 오쿠우라 지역의 사람들 120명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쿠 스미사다의 아들 스미타카는 알메이다의 후임 몬테 신부로부터 루이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은 후 돈 루이스라고 불렸습니다. 스미타카가 결혼한 후 그의 부인, 시녀15명, 가신1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9대 한슈(藩主 지방영주)를 계승한 스미타카는 스스로 섬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하였고 이에 신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후에 2,000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영주는 성당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여 후쿠에 성 밑 지역과 오쿠우라 지역에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 탄압·잠복 시대

### 기리시탄이 사라진 섬에 오무라 한(藩)에서 이주자가

1597년에는 나가사키에서 26성인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37년의 ‘시마바라의 난’을 계기로 기리시탄에 대한 탄압과 단속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일본의 기리시탄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고토에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이 더욱더 심해져 갔지만 몰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는 가장 많을 때에 2,3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26성인 중 한 명인 요한 고토는 고토 출신으로 박해를 피해서 나가사키로 거처를 옮겨 전도사가 되었지만 붙잡혀 다른 25명과 함께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서 순교했습니다.

후미에(踏繪 그리스도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성화판을 발로 밟게 한 일)에 의한 종문개(宗門改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기 위해 에도 시대에 행해진 종교 조사 제도) 등 기리시탄 탄압이 시작된 후에도 시모고토에서는 신부들의 포교 활동이 몰래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1628년 고토 한(藩)은 기리시탄이 섬에 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토에서는 결국 기리시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1797년 오무라 한에서 고토 한으로 농민(잠복 기리시탄) 약3,000명이 마비키(間引き 생활고로 신생아를 죽이던 일)와 후미에를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토에 이주해 왔습니다. 기리시탄들은 몰래 조카타(帳方 가톨릭 교회력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역할을 담당), 미즈카타(水方 세례를 주는 역할을 담당), 도리쓰기야쿠(取次役 행사 보조와 연락 등을 담당)라고 하는 3명의 신자 대표(각 대표의 호칭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를 중심으로 신부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 부활

### 1868년에 시작된 고토에서의 기리시탄 탄압

페리 내항에 의한 개국을 계기로 파리 외방 전교회의 신부들이 일본에 옵니다. 나가사키 외국인 거류지에 오우라 천주당이 세워지자 우라카미의 잠복 기리시탄 십수명이 찾아가 프티장 신부에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1865년). 이 '신도 발견'의 뉴스는 금교 정책이 계속되는 일본에서 몰래 바티칸에 전달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져 세계 종교 역사상 기적이라고 불리며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라카미의 주민이 포박되어 각지에 유배되는 '우라카미 4번째 박해'라고 불리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외국의 비난은 거셌고 1873년에는 금교령이 철폐되었습니다.

고토에서는 1868년 히사카지마 섬에서 기리시탄 탄압(로야노사코 순교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배교를 강요 당하는 기리시탄의 고통은 어린아이를 포함한 많은 순교자가 생기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시모고토 전역에서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 신앙의 증거

### 외국인 신부의 지도하에 미지의 성당 건설에 도전한 전문 목수들

1873년 금교령이 철폐되자 크고 작은 다양한 가톨릭 성당이 나가사키 현 내 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시모고토에서도 외국인 신부에 의한 포교 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신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은 기쁨을 성당 건축이라는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이 성당 대부분은 외국인 신부의 지도 아래 기리시탄이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 낸 땅에 일본인 목수의 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결코 풍족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이나 노동력을 성당 건축을 위해 기꺼이 바쳤습니다.



## '오쿠우라 자혜원'(奥浦慈惠院)

구 오쿠우라 자혜원 (1968~2006)

### 페루 신부가 개인 재산을 기부해 세운 아동 양육 시설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고토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고토 사람들은 대단히 가난하여 쌍둥이 중 하나 또는 장애아 등을 몰래 땅에 묻어버리는 '마비키(間引き)'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도자키에 초대 성당을 건설한 마루만 신부가 이러한 불행한 아이들 구제에 나섰습니다. 신부를 모시고 있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톨릭 신자 가족의 딸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오토마리의 민가를 빌려서 양육을 시작한 것이 '아동 양호 시설 오쿠우라 자혜원'의 기원입니다. 당시는 '고베야(子部屋 어린이 방이라는 의미)'라고 불렀습니다.

1880년 도자키에 성당을 건설하는 동시에 고베야(子部屋)를 도자키에 이전했습니다. 후임의 페루 신부는 어머니의 유산을 사용해 아카세의 산림을 구입 개간하고 1904년 그 땅에 새로운 양육원을 완성시켰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농사일이나 행상을 하여 얻은 수입을 어린이들의 양육에 충당하는 등 실로 자급 자족의 시기였습니다. 1909년 재단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아 오쿠우라 자혜원이 되었고 2006년에는 히라조 초(町)에 이전했습니다.

# 세계문화유산 후보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 관련 유산

‘나가사키 와 아마쿠사 지방의 잠복 크리스천관련 유산’은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의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에서 일본의 전통적 종교나 일반 사회와 공생하면서 신앙을 지켜 온 잠복 크리스천의 신앙 유지와 관련된 전통을 증명하는 유산군이다. 그 유산군은 잠복 크리스천 전통의 시각에서부터 형성, 유지, 확대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신앙 국면의 도래에 따라 전통이 변용되어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잠복 크리스천의 전통과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12가지 구성자산으로 되어 있다. 그 유산군은 대항해 시대의 아시아에서 기독교 선교지의 동쪽 끝에 있는 일본 열도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진 나가사키와 아마쿠사 지방의 반도와 낙도에 점재해 있다.



## 히사카지마 섬의 취락

고토 번의 정책에 따라 섬의 미개척 지역으로 이주하여 불교 취락의 섬 주민들과 상부상조관계를 맺어 신앙을 유지한 취락.



## 나루시마 섬의 에가미취락(에가미 천주당과 그 주변)

섬의 외진 곳에 위치한 바닷가 골짜기로 이주하여해금 후 지형조건에 맞추어 교회당을 건설한 취락.



## 🏰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현재에서 미래 세대로 계승해야만 하는 ‘인류 공통의 보물’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지켜 온 ‘매우 가치 있는 건물, 유적, 자연’ 가운데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위원회가 정한 규정(세계유산 조약)에 따라 선정됩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정식으로 등록된 것을 『세계유산』이라고 합니다.

## 🏰 고토의 성당은 어떤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 (1) 에도 시대 말기(19세기 중반) 고토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소토메에서 기리시탄 약3,000명이 왔습니다. 히사카지마 섬의 옥사에서는 42명이나 순교하는 등 고토 각지에서는 여러 박해, 탄압을 받으면서도 참아내며 목숨을 걸어 신앙을 지켜 왔습니다. 긴 금교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과 역사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 (2) 신자들이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생활한 취락과 거기에 세워진 성당은 주변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고토 특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신부의 지도 아래 일본인 전문 목수에 의해 세워진 성당은 당시의 성당 건축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역사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 왜 ‘세계유산’을 목표로 합니까?

고토의 ‘훌륭한 보물’을 소중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토시 세계유산 홈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y.goto.nagasaki.jp/sekaiisan/>



# 성당 연표

성당 명칭	보호자	개 요
페 오토마리 성당	성 요셉	1879년 (임시 건물)건립, 1903년 건립, 1968년 폐쇄, 해체
1 도자키 성당	일본 26성인 순교자	1880년 소성당 건립, 현재 건물은 1908년 축성·헌당, 1974년 나가사키 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됨
2 미즈노우라 성당	승천의 성모	1879년 건립, 현재 건물은 1938년 건립
3 미이라쿠 성당	모든 성인	1880년 건립, 1933년, 1947년, 1952년 등 3차례 개축, 현재 건물은 1971년 건립
4 하마와키 성당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	1881년 건립, 현재 건물은 1931년 건립
5 구 고린 성당	성 요셉 (성당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던 당시)	현재 건물은 1881년에 하마와키 성당으로서 건립된 것을 1931년 현재지에 이축, 1999년 5월13일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는 시의 관할
페 다치야 성당	성 베드로 바오로	1882~1887년경(전문가에 의한 추정), 1987년 노후화로 인해 무너짐, 철거지에 제단, 성상을 설치해 기도의 장소로 하고 있음
6 미야바라 성당	성 도미니코	1885년 건립, 현재 건물은 1971년 건립
7 우라가시라 성당	사도 성 베드로 · 성 바오로	1888년 건립(당시 보호자는 성십자가), 1921년 건립, 1950년 증개축, 현재 건물은 1968년 건립(성당의 보호자 변경).
8 사가노시마 성당	로사리오의 성모	1888년 소성당 건립, 현재 건물은 1918년 건립되어 개축을 거듭해 현재에 이름
페 히메시마 성당	대천사 성 미카엘	1888년 소성당 건립, 1918년 건립, 1931년 증축, 1965년 도민의 이주에 의해 무인도가 되어 현재에 이름
9 이모치우라 성당	루르드의 성모	1897년 건립, 1987년 태풍에 의해 무너짐(1899년 일본 최초의 루르드 창건), 현재 건물은 1988년 건립
페 가즈라시마 성당	예수 성심	1899년 건립, 1951년 태풍에 의해 무너짐, 1954년 건립, 1973년 도민 전체 이전으로 무인도가 되어 폐당

성당 명칭	보호자	개 요
10 에가미 천주당	성 요셉	1906년 건립, 현재 건물은 1918년 건립, 2008년 6월9일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됨
11 후쿠에 성당	예수의 뜻	1910년 전후 건물을 포함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개조해 성당으로 사용, 현재 건물은 1962년 건립
12 구스하라 성당	성가족	현재 건물은 1912년 건립, 1968년 증축
폐 에이리 성당	승천의 성모	1918년 건립, 1969년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 건립과 동시에 폐쇄
13 시게지키 성당	대천사 미카엘	1919년 건립, 1948년 건립, 현재 건물은 1974년 건립
폐 자자레 성당	성 안나	1920년 건립, 1969년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 건립과 동시에 폐쇄
14 한토마리 성당	성 패트릭	현재 건물은 1922년 건립
15 가이쓰 성당	사도 성 요한	소성당 : 건립 연도 불명 현재 건물은 1924년 건립
16 나루 성당	성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1926년 건립, 1929년 확장 공사, 현재 건물은 1961년 건립
폐 아카니타 성당	무원죄의 성모 마리아	1926년 건립, 1969년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 건립과 동시에 폐쇄
난코시 성당	대천사 성 미카엘	1927년 건립, 현재 건물은 1957년 건립
17 우치오리 성당	모든 성인	1935년 건립, 현재 건물은 1973년 건립
18 다마노우라 성당	성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현재 건물은 1962년 건립
19 로야노사코 순교기념성당	순교자의 모후	자자레, 에이리, 아카니타 등 3개 성당을 폐쇄 1969년 건립, 현재 건물은 1984년 건립
20 고린 성당	성 요셉	현재 건물은 1985년 건립

## '성당은 기도의 집입니다' 방문시 매너를 지키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미사나 성당 행사 중에는 신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장례식 등 특별한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을 삼가 주십시오.
- 종을 울리지 마십시오.
- 가능한 한 공공화장실을 사용해 주십시오.
- 기도의 장소에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해 주십시오.
- 신발을 벗어야 할 성당에서는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 주십시오.
- 성당 안에 들어 갈 때는 모자를 벗고 조용히 하여 주십시오.
- 잡담은 삼가고 휴대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매너모드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성당 내외의 성구(聖具), 장식물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 내진(內陣 : 제단, 성가대석)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 음식물 섭취 또는 흡연을 삼가 주십시오.
- 원칙적으로 성당 내 촬영은 금지입니다.
- 쓰레기는 각자 가지고 가십시오.



### 이 가이드북은 Catalog Pocket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교회순례 핸드북'을 다언어로 읽을 수 있다  
말해 주기도 한다!!

오른쪽의 QR코드로 무료 앱 'Catalog Pocket'을 설치하고 'GOTO'  
로 검색!!



발행일 / 2011년 2월(초판) 2018년 11월(3쇄)

발행 / 고토시 세계유산 등록추진협의회

우편번호 853-8501 나가사키현 고토시 후쿠에초 1번1호 (고토시청 시장공실(公室) 내)

TEL 0959-72-6111 FAX 0959-74-1994